

## 제1회 火藥에 관한 학술회의 성황리에 열려

**産·學·研** 기술정보의 신속한 교환 및 공동연구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1회 화약에 관한 학술회의”가 국방과학연구소 주최로 지난 9월 28일~29일 양일간 국방과학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학술회의에는 산·학·연 각계에서 3백 50여명의 과학자가 참석하여 특별강연 5편과 국내 연구계, 학계, 업계의 현재의 기술수준과 발전방향에 대한 수준높은 연구논문 45편이 발표되어 관심을 끌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철호 소장은 환영사에서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의 기치아래 태동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고도의 정밀병기 생산단계까지 접어들었으나, 2천년대를 향해서는 관련 기초과학 연구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학·연이 일체가 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독자적인 능력으로 첨단수준의 기술개발이 요청된다고 하였다.

「방위산업의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주식회사 풍산의 김상헌 대표이사는 지난 70년대의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과정을 회고하고, 현재의 방위산업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정부의 방산의지의 저하, 방산업계의 불법적인 노사분규, 수출의 한계성 등을 지적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현, 방산업계의 투자 및 개발의욕, 강력한 노사분규 방지책 및 수출활성화 정책, 그리고 산·학·연 공동의 독자적 무기체계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연세대 이공대 김웅 교수는 「국내학계의 화약관련 연구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화약분야는 군사적 응용, 취급 및 실험에서 안전성 등의 특수성으로 학계의 관심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빈약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화약 및 관련 분야의 기술적 도약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의 물리, 화학, 화학공학, 기계 등 모든 학계가 총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화약연구의 발전방향」이라는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의 이준웅 박사는 화약분야의 연구방향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연구논문의 발표가 끝난후 참석자 전원이 모인 토의에는 이번 학술회의가 산·학·연 관련분야의 공동연구 기반구축, 관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및 우리나라 화약분야의 현주소 파악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학술회의의 지속적인 개최와 화약분야의 공동연구 및 발전을 위해서는 화약학회의 설립이 바람직하며, 이의 전 단계로 학교, 연구소 및 관련 업체의 협의체 구성원칙에 합의하였다.